

圖書館全景

圖書館 新築竣工

우리 海軍士官學校의 新築된 現圖書館 建物은 1964年 11月 17日에 着工하여 1965年 6月 30日에 竣工되고 移轉을 完了하고 開館式을 舉行한 것은 지난 10月 22日이 었습니다. 新築開館記念으로 그동안 꾸준히 풀어온 海軍史料를 展示하여 “海軍創設20周年 記念 海軍史料展示會”를 開催하므로서 海軍將兵들로 하여금 圖書館에 對한 關心을 높이고 圖書館은豫算에 依해 購入된 資料만을 가지고 消極的으로 運營하는 곳이 아니라 自發的으로 積極的으로 文化財나 史料의 藏集 保存을 위해서도 어떻게 努力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읍니다. 그리고 “圖書館 新築記念 책 모으기運動”도 展開하여 大統領, 國防部長官을 비롯해서 退役將星과 海軍各部署長으로부터 約 500卷의 貴重한 圖書를 寄贈 받고 이 運動은 지금도 繼續하고 있어 明年(1966) 1月 17日 海軍士官學校 創設 20周年을 期하여 海士校卒業生全員에 더욱 積極呼訴하여 資料蒐集에 成果를 올릴 생착입니다.

新築된 圖書館 建物은 建坪 276坪의 短小마한 建物입니다. 美國 軍援에 依한 資材와 國防部의 軍建物規格에 맞추느라니 별로 우리 마음에 드는 建物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許諾된 與件은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將來 더 擴張改造할 수 있는 準備와 現實情에도 알맞는 設計를 해보느라고 最善을 다 해보았읍니다.

建物은 單層으로 하고 將次 2層으로 올릴 수 있는 準備라든지, Space를 浪費 없이 利用하고 앞으로 構造變更에 依하도록 하기 爲하여 長方形으로 지은 것이라든지, 建物內의 濕氣防止를 위해 建物周邊의 排水施設을 徹底히 한것 等可能한 일은 五次나 設計變更을 해가면서 修正해 보았읍니다.

三軍士官學校가 다 같은 事情인줄 알지만 海士校가

■全國圖書館巡禮■

海軍士官學校

圖書館

崔震武

(海軍士官學校圖書館長)

만 大學 圖書館에 比하여 가장 뚜렷한 差異點은 閱覽事務에 있어 生徒全員이 校內에 居住하고 있고 自習室과 自習時間이 別途로 있는 탓으로 館內閱覽은 거의 問題視 되지 않고 閱覽室은 Lounge의 役割 밖에 안 한다는 點입니다. 그래서 閱覽事務는 즉 貸出事務입니다.

參考業務도 積極 開拓해 나가기 爲해 努力은 하고 있으나 아직 閱覽者들의 要求도 그리 切實한 便이 못되고 우리 圖書館側의 態勢도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탓으로 그리 活潑치 못한 便입니다.

그래서 이번 新築된 圖書館의 設計는 첫째로 어떻게 하면 最大限度로 大量 資料를 收容할 수 있을가 하는 點과 開架式閱覽을 시키면서도 紛失을 防止하는데 全館員이 監視役割을 할 수 있도록 出入口와 各室의 配置를 했습니다.

組織 및 機能

本 圖書館의 現在 人員은 館長을 비롯해서 10名의 職員이 있습니다.

그 中 正規 4年制 圖書館學科出身이 2名 있고 圖協에서 實施한 講習會는 대부분의 職員이 50時間以上修了했으며 또한 10年以上의 實務經驗이 있기 때문에 頻繁히 일어나는 여러가지 問題를 쉽게 解決해 가고 있습니다. 開館時間은 아침 8時부터 저녁 8時까지 12時間이며 公休日과 國慶日에는 休館하고 있습니다.

閱覽規程에 있어서 生徒에게는 5卷을 超過 貸出할 수 없고 期限은 一個月間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貸出期限이 너무 길어 資料의 循環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들을 하고 있어 短點도 있으나 生徒들의 日常生活이 풍니마퀴가 돌아 가듯이 一定하고 一抄一分을 다투는 바쁜 나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期限도 짧아서 다시 一個月間 延期하는 生徒가 大部分입니다.

生徒大隊圖書室과 科備置圖書

우리 圖書館의 작은 Branch 役割을 해 주는 生徒大隊 圖書室과 教授部 各科 備置圖書가 있습니다.

生徒大隊 圖書室과 各科 備置圖書는 圖書館 藏書와 같은 Call Number 를 주고 Card 도 같은 Rule 에 의하여 作成되며 때문에 全校內의 圖書가 圖書館을 中心으로 Centralize 하게 되어서 運營管理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으며 利用者에게는 Union Catalogue 가 圖書館에 있기 때문에 資料의 所在를 明白히 해 주어서 쉽게 資料를 提供해 주는 方法도 됩니다.

生徒大隊 圖書室 (即 Dormitory Library)은 士官學校 修業過程에서 疎忽 해 지기 쉬운 教養이나 情緒의 인面을 多小나마 배꾸어 주고 또한 圖書館을 自治의 으로 運營해 나갈 수 있는 能力を 길러 주어 卒業後各艦艇의 圖書運營責任을 맡는 境遇에도 圓滑히 일해 나갈 수 있는 訓練이 됩니다.

이 生徒大隊 圖書室은 司書室에서 整理된 資料를 生徒 圖書委員들이 引繼받아 自治的으로 返納·貸出事務를 하고 있으며 圖書館에서는 年 2回의 Inventory를 行하고 있습니다.

各科 備置圖書는 教官들의 研究活動을 돋는 專門書籍을 教官들이 必要로 하는 房에 備置해 두어 隨時로 圖書館에 와야만 하는 不便과 時間의 節約을 為해서 採擇한 奉仕의 한 制度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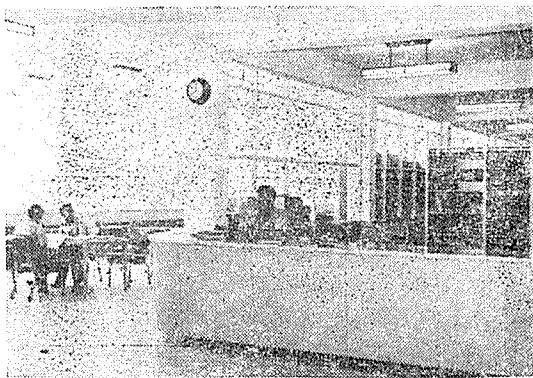
또한 이 科 備置圖書는 完全開架式인 本 圖書館에서는 貴重한 資料의 紛失을 막는 防碑가 되기도 합니다. 約 20餘個의 教官室에 備置하고 있으며 2個月에 한번씩 定期의 Inventory를 行하고 있습니다.

저희 圖書館의 또 하나의 자랑은 製本室을 가지고 館內에서 모든 製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不足한豫算때문에 製本費를 充分히 받을 수 없으므로 비록 小規模이기는 하지만 製本室이 있어 破損圖書를 隨時로 製本하는 것이 藏書保存에 또 하나의 領域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Plebe Instruction (Library Orientation)

士官生徒들이 入校를 하면 一個月 동안의 特別訓練期間이 있습니다. 그期間中에 海軍士官生徒로서 日常生活에 必要한 모든 基礎的 軍事訓練과 함께 其他 必要한 知識도 갖추게 하는 것인데 우리 圖書館에서는 每教班에 4~6時間式 割當을 받아 그들에게 圖書館利用法 및 여려가지 規程을 說明해 주고 參考資料利用法을 實習시키고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여려가지 質問에 應答해 주며 士官生徒로서 어떻게 讀書를 通하여 自己의 精神을 修養 鍛鍊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先輩들



閱覽室光景

의 例를 들어 미리 올바른 姿勢를 가질수 있도록 指導해 줍니다. 新入生에 對한 이러한 指導는 效果가 빠쳤습니다. 이것을 實施하기 前에는 新入生들이 4級生(最下級生) 때는 거의 圖書館 利用을 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Orientation으로 圖書館 利用法을 實施한 後부터는 없는 時間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내어 大部分의 生徒가 新入生 때 부터 冊을 貸出해 가게 되었습니다.

士官生徒의 圖書館 利用率: 서울에 있는 陸士나 空士의 境遇는 같은 軍士官學校이지만 海士와는 事情이 또 좀 다른 것으로 생각 되지만 海士 生徒들의 讀書는 거의 完全히 圖書館藏書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우리 圖書館의 貸出制度는 貸出者各自가 가지고 있는 貸出手帖外에 圖書館閱覽係에서 “貸出者 카ード”(개인카드)를 가지고 있어 生徒들이 入校後 卒業할 때 까지 繼續하여 貸出해 간 資料에 對한 記錄이 적혀 있어 그들의 讀書量과 讀書傾向이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生徒隊 訓育官들이 生徒들을 指導하는데 많은 參考가 되고 있습니다. 이 “貸出者 카ード”를 卒業할 때各自에게 내 주어서自己가 士官學校 生徒時節에 무슨 책을 읽었나 알 수 있게 해 줄가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으나 역시 圖書館에서 保管해 두는 것이 더 効果의이라고 생각하여 過去 卒業生들의 카드가 다 保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參考로 必要하다고 要求해 오는 境遇에는 恒時 提供해 줍니다. 士官生徒들이 4年間 教育받는 동안에 圖書館을 利用하는 率은 最高로 500卷까지 본 生徒도 있었으나 平均 70 대지 100卷의 책을 貸出해 보는 것입니다. 前에는 運動選手나 特殊한 몇 사람이 圖書館을 한번도 利用 안하고 卒業하는 例가 間或있었으나 生徒大隊 圖書室이 생긴 後 Plebe Instruction을 始作한 後 이런現像是 없어졌습니다.

藏書의 構成: 우리 圖書館 資料中에 教科書를 管理

하고 있는 것이 特徵입니다. 總 藏書 78,913卷 中 7,846卷이 教科書로서 學期初에 貸出하고, 學期末에 返納하게 되어 있고 生從는 물론 士官學校內에서 實施하는 教育中 高等軍事班과 海軍幹部候補生에게도 主로 團體로 貸出·返納事務를 봅니다.

藏書를 크게 나누어 보면 整理되어 開架書架에 當하는 것이 29,756卷, 生徒大隊 圖書室에 2,150卷, 李忠武公 文獻이 572點, 教科書가 7,846卷, 海軍 教材廠에서 發行되어 本 圖書館에 보낸 것이 19,822卷, 未整理 圖書가 20,000餘卷 總 78,913卷입니다. 未整理 圖書는 開架書架에는 내 놓아도 利用度가 적은 것이나 寄贈圖書中 復本過多한 것과 또는 開架書架에는 아직 내놓기 이론 (日本歷史나 文學等에 관한) 資料들이고 漢書籍 6,000卷도 여기에 包含되어 있습니다. 其他 定期刊行物中 新聞·雜誌와 地圖·Pamphlet 等은 圖書館以後 本 圖書館에서 받은 것이면 모두 保管하고 있으나 藏書統計에서는 除外되었습니다. 이런 藏書數는 奉仕對相者 生徒 300餘名, 教官 100餘名, 其他를 합한 500餘名에 對하여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자부해 봅니다.

涉外業務： 그리고 우리 海士 圖書館에서는 涉外業務에 꼭 神經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因緣이 맺어진 寄購者들과의 連絡을 緊密히 取하기 위하여 寄贈簿가 있고 寄贈者카드가 있어 언제 누가 무엇을 寄贈하였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게 整理해 두고 Mailing List에도 國內外 各 出版社와 寄贈받을 수 있는 資料를 刊行하고 있는 各種 學會·團體의 住所와 함께 반드시 寄贈者의 住所도 다 保有하고 있습니다. 이 事務에 특히 留意하게 된 것은 물론 圖書館 創設當時부터 寄贈者가 많았고 (거의 美國人) 그들로 부터 繼續하여 寄贈받는 資料가 數量에 있어서는 오히려 購入해 오는 資料보다 더 많은 程度인 탓이 있습니다.

그리고 海軍 艦艇의 海外 往來와 海士校 卒業班 生徒들의 遠洋實習때마다 그들과 密接한 連絡을 끊지 않음으로서 항상 많은 圖書나 其他 資料를 寄贈받을 수 있었던 탓입니다.勿論 이런 寄贈받은 資料들은 우리 圖書館에 必要치 않은 境遇가 많습니다. 甚至於 같은 種類의 책을 몇 百卷씩 보내 오는 境遇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圖書館에서는 그런 種類들을 모아서 “交換用 圖書”라고 별도로 List를 作成하여 必要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圖書館에서 必要한 韓國語版 圖書와 交換해 주고 있습니다.

國內 資料를 萬集하는데도 地方에 있는 圖書館은 다같이 느끼는 隘路일 것입니다만 中央에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消息도 우리는 Information을 얻기 위해서 항상 여러가지 出版案내와 國立圖書館에서 刊行되는

出版物 納本月報 및 各學會誌 等의 受贈圖書目錄을 細密히 보고 寄贈받을 수 있는 資料를 못받고 있는 것은 없나 살피고 있습니다.

이 業務는 여러 사람이 分擔해 가지고 寄贈받을 資料나 缺號된 定期刊行物을 찾아내는 것은 閱覽室 擔當者들을 비롯해서 전 館員이 關心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收書擔當者は 이런 Information 資料를 整理 保管하여隨時로 參考할 수 있게 하고 庶務에서는 寄贈依頼書나 受領證을 發送하는 業務를 擔當하고 있습니다. 이 業務의 一部인 國內刊行物을 萬集하는 일은 圖書配付函制度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圖書館賞 制度： 우리 海士校 圖書館에서 圖書館賞制度를 始作한 지도 於焉間 10년이 되었습니다.

海士校 卒業式 때는 教授部 各科에서 그科 該當科目을 가장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는 사람에게 “科賞”을 주는 制度가 있습니다. 圖書館에서는 圖書館에서 책을 제일 많이 貸出한 사람들중에서 또한 圖書館일에 가장 많이 協助하고 他生徒들에게도 模範이 되는 生徒를 標準으로 뽑아서 “圖書館賞”을 주는 制度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制度로 因해서 生徒들의 圖書館利用率이 높아졌는지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이 圖書館賞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大概 卒業後에도 圖書館發展을 위해서 여러 가지 面에서 協力해 주는 圖書館의 좋은 協助者가 되어진 것만으로도 큰 成果라고 단 할 수 없습니다.

史料展示室： 이번 新築된 圖書館에는 史料展示室을 別途로 두기로 하고 新築圖書館에 따르는 備品製作三個年 計劃에 依해 明年度에 備品을 製作할 豫定이지만 李忠武公關係史料와 海軍關係史料의 萬集은 海士圖書館이 發足하면서부터 始作한 것입니다.

특히 李忠武公關係史料 萬集에 많은 努力を傾注해 왔고 每年 卒業式 때마다 거듭하는 展示會를 契機로 萬集된 各種 資料는 572點에 達하고 있어 李忠武公과壬亂關係 Collection을 따로 가지고 있는 곳은 本 圖書館뿐 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學校當局에서豫算을 세워 주는 것도 아닌 것을 圖書館에서 自發的으로 推進해 와서 아직 벌로 값진 資料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明年度부터豫算에 反映시켜 좀 더 本格的인 研究와 萬集을 할 計劃입니다.

우리나라 最初의 完全 開架式 圖書館

지금은 三軍士官學校가 다 같이 完全開架式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海軍士官學校 圖書館이 創設될 때만 해도 開架式閱覽이란 꼭 魅力있는 새로운 用語였습니다. 軍隊의 規律가운데서 自由로히 讀書에 마음껏 잡길 수 있는 時間이 아니, 圖書館에 와서 책을

貸出하는 時間의 餘裕도 얻기 어려운 士官生徒들에게奔走한 日常生活가운데서 圖書館을 充分히 利用할 수 있는 機會를 주는 方法은 무엇보다도 完全開架式 閱覽制度를 採擇하는 것이 첫째로 必要한 條件이기는 하였으나 6·25 直後 軍이나 民間을 莫論하고 秩序가 꽤 紊亂했던 때에 이런 制度를 採擇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圖書紛失이 非常히 念慮되는 일이었으나 우리도 革新的인 方法으로 先進國에 步調를 맞추어 남보다 먼저 이 制度를 擇하여 尖端을 걸어 본다는 興奮도 느끼면서 어쨌던 多小難關에 부딪치는 일이 있을 것도 覺悟하고 우리 現實에서는 時期尚早라는 忠告도 들어 가며 그대로 實施해 보기로 決斷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後 十餘年동안 開架式閱覽制度를 實施해 오는 동안에 얻은 산 經驗을 이번 新築한 圖書館 建物에 可能한限 잘 살려서 設計해 보느라고 애썼습니다.

6·25 戰亂中 韓國 圖書館界의 命脈을 이은 곳

1·4 後退 直後 全國의 圖書館은 完全히 閉鎖되어 버리고 高等教育機關으로서도 海士校 하나 밖에 남지 않았던 時節 海士校 圖書館은當時 美國 顧問官 Haley 少領의 活躍으로 美國 海軍 各機關 뿐만 아니라 美國의 各大學과 個人으로부터 數萬卷의 圖書가 繼續 寄贈되어 오게 되었고 이 資料들을 整理하기 위해서 圖書館機構

를 擴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高在親氏를 비롯해서 朴熙永氏, 南瑛佑氏, 金京一氏等 앞날의 韓國圖書館界의 開拓者가 되기를 自負하는 情熱에 불타는 일꾼들이 차례차례 모여들어 創意性 있는 일을 積極的으로 展開해 보느라고 무척 애썼습니다.

日本과 美國을 來往하는 艦艇便에 우선 圖書館學에 關한 새 文獻들을 求해다 놓고 热心히 들 研究했읍니다.

分類表・目錄規則等 다 새로 만들어 보느라고 힘을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일도 있고 大端치 않은 일을 지나치게 問題視했던 일도 있지만 그때 그이들의 그情熱은 還都後에도 繼續되어 우리나라 圖書館界 再建에 큰 役割을 할 수 있는 海士圖書館의 자랑스러운 한 page가 아닐 수 없습니다.

還都後 10餘 星霜—— 이 나라의 모든 中心이 다시 首都 서울로 옮겨 집에 따라 우리 圖書館界도 서울을 中心으로 飛躍的인 發展을 하고 있어 지금의 海士 圖書館은 立地的條件이 大端히 不利해 졌고 人材確保, 資料獲得, 모든 面에서 難關이 많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業蹟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저로서는 그들의 劳苦가 헛되지 않고 기리 記念되도록 잘 지키고 더욱 發展시켜야겠다는 責任感을 切實히 느끼는 바입니다.

1965年度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國의 團體 및 個人會員께 부탁 드립니다. 第11次 定期總會에서 承認하여 주신 1965年度 事業은 國庫補助事業 6個, 自體事業 8個, 合하여 14個種의 事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많은 事業을 成功裡에 目的을 達成하여 우리들의 權益을 높이고자 하는 共同目標를 이루 할수 있도록 協助를 바랍니다. 一線에서 苦生하시는 會員들의 어려운 事情이 있을줄 料되오나 1月10日 限 會費를 納付하여 주시도록 最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